

# 더위 먹은 호랑이, SK전 타격 회복할까

## T 타이거즈 전망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KIA 타이거즈다.

KIA 김기태 감독은 후반기 출발을 앞두고 "첫 2주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심 차게 시작한 후반기 첫 주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KIA는 공격 본능을 잃은 무기력한 희망이와 여전한 불펜의 엿박자 속에 2승 4패를 기록했다.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워닝 시리즈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불펜진의 제구 난조 속 마음 급한 불펜 운영이 눈에 띈 주중 3연전이었다.

주말 3연전의 결과는 더 좋지 못했다. 전반기 불타왔던 방망이가 침묵을 이어가면서 3경기에서 홈을 밟은 주자는 5명에 불과했고, 득점 가뭄 속 임창용이 두 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패전투수가 되기도 했다.

마무리 임무를 수행했던 김윤동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차례 출격하기도 했지만 두 경기 모두 뒤집기에 실패했다. "혹시"하는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던 KIA 팬들은 세 경기 모

KIA 지난주 3연패 수렁 빠지며 NC에 4경기차 쫓겨

### 꾸준한 방망이·안정된 불펜... 'V11' 위한 해결 과제

두 슥쓸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주말 3연전에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이는 모두 5만4629명. 22일에는 시즌 8번째 매진까지 기록되는 등 '찐통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장을 찾았던 팬들은 무기력한 KIA의 모습에 아쉬워했다.

실상가상 KIA가 뒷걸음질 치는 동안 NC 다이노스는 후반기를 6연승으로 열면서 8경기 차였던 간격을 4경기 차까지 좁혔다.

집단 난조에 빠진 타자들과 가이드라인 없는 불펜이라는 약점을 노출했던 한 주, KIA가 앞으로 'V11'이라는 목표에 도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확인한 한 주이기도 하다. 앞선 패배가 쓴 보약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중요한 한 주를 보내야 한다.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KIA는 홈런을 주고받으면서 힘겨루기를 했던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

이어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4승 4패로 맞서있는 두산 베어스와 진검승부를 한다.

일단 연패 탈출이 시급하다. 전반기 막바지 뜨거운 타격 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KIA와 SK는 전반기와 다른 화력 탓에 각각 3연패와 4연패에 빠져있다.

연패 고리를 끊기 위해 화력 재점화가 필요한 두 팀은 '샷별' 임기영과 '에이스' 켈리를 앞세워 기싸움에 나선다.

임기영은 승수 쌓기를 재개한다. 페럼으로 쉬어갔던 임기영은 두 차례 불펜 등판을 통해 점점을 끝낸 뒤, 지난 19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를 통해서 선발로 복귀했다. 임기영은 "긴장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던졌다"며 복귀전에 대한 아쉬운 소감을 밝혔다. 107구로 5.2이닝을 소화하면서 마운드 적응은 끝났다.

4연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르는 켈리에게는 설욕전 무대이기도 하다. 켈리는 지난 4일 KIA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2

### ■ KBO리그 순위 (24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91	59	0	32	0.648	0.0
2	NC	90	54	1	35	0.607	4.0
3	두산	88	47	1	40	0.540	10.0
4	넥센	92	48	1	43	0.527	11.0
5	SK	94	49	1	44	0.527	11.0
6	LG	87	45	1	41	0.523	11.5
7	롯데	92	45	2	45	0.500	13.5
8	삼성	93	36	4	53	0.404	22.0
9	한화	91	36	1	54	0.400	22.5
10	kt	90	29	0	61	0.322	29.5

이닝 9실점으로 무너지면서 개인 최다 실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연패탈출'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두 사람 중 누가 웃게 될지 마운드에 눈길이 쏠린다.

한편 새로운 한주, 기록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있다. 김주찬은 1500경기 출장(36번째)에 1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양현종은 탈삼진 하나를 보태면 4년 연속 100탈삼진(23번째)을 채우게 된다. 그리고 지난 주말 3연전에서 1안타에 그쳤던 최형우는 15번째 1000타점(-4)을 위해 재시동을 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선동열 야구 대표팀 전임감독 선임

11월 아시아 챔피언십 데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지휘



선동열(54·사진) 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감독이 처음으로 도입된 야구 국가대표팀 전임감독에 선임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국가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선 전 감독을 선임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선동열 선임 대표팀 감독은 오는 11월 16~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한국·일본·대만 3개국의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에서 데뷔한다. 이어 내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년 프리미어 12,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해마다 열리는 굵직한 국제 대회에서 태극전사를 지휘한다.

현역 시절 '국보급 투수'로 불린 선 감독은 198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해 1995년까지 11시즌 동안 146승 40패 132세이브, 평균자책점 1.20을 기록한 KBO리그의 전설이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뛰면서 10승 4패 98세이브의 성적을 올렸다.

지도자로 변신해 삼성 라이온즈(2005~2010년), KIA 타이거즈(2012~2014년) 감독을 지냈고, 삼성 시절이던 2005~2006년 한국시리즈를 2년 연속 제패했다. KBO리그 감독 통산 성적은 584승 22무 553패다.

2006년 초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대표팀 투수코치로 활약하며 신기의 계투 작전으로 한국의 4강 신화를 일군 선 감독은 2007년 아시

아선수권대회, 2015년 프리미어 12, 2017년 제4회 WBC에서 대표팀 투수코치를 지냈다. 프리미어 12에서도 대표팀의 첫 우승에 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선 감독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돼 부담감이 막중하다"면서 "대표팀 구성과 전략에 연속성을 갖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BO는 지난 18일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야구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각종 국제 대회 중 올림픽, 아시안게임, 프리미어 12의 경우 KBO의 내부 '국가대표영규정'에 따라 대표팀을 선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팀 감독 선임과 선수 선발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전임감독 선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 김인경 LPGA 마라톤 클래식 우승

4R 버디 8개 등 21언더파

김인경(29)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6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김인경은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리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647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몰아쳐 8언더파 63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3타의 성적을 낸 김인경은 2위 렉시 톰프슨(미국)을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올해 6월 숄라이트클래식에서 정상에 오른 김인경은 시즌 2승, LPGA 투어 통산 6승째를 기록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4만 달러(약 2억6800만원)다.

지난주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박성현(24)은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20개 대회 가운데 딱 절반인 10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한국계인 대니얼 강(미국)과 노무라 하루(일본)의 우승 기록은 제외할 수 있다.

또 1984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1998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올해 김인경까지 총 11번이나 우승하는 강세가 이어졌다.

2014년과 2016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가 이 대회 정상에 올랐고 2015년에는 최운정(27)이 우승컵을 품에 안는 등 최근 4년 연속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챔피언이 됐다.

3라운드까지 단독 1위였던 넬리 코르다(미국)에게 2타 뒤진 2위였던 김인경은 이날 버디 8개 가운데 6개를 전반 9개 홀에 집중시키며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다.

4번 홀(파4)까지 버디 3개로 코르다를 제친 김인경은 7번부터 9번 홀까지 3연속 버디를 낚으며 독주 체비를 갖췄다. 8번 홀(파3)에서는 약 8m 정도 긴 거리 버디 퍼트로 기세를 올렸다.

19언더파로 최종 라운드 반환점을 돈 김인경은 2위 그룹과 한때 5타 차이로 앞서는 등 이렇다 할 위기 한 번 없이 압도적인 우승을 일궈냈다.

14번 홀을 마친 뒤 악천후로 경기가 약 1시간 정도 중단되기도 했으나 김인경은 흔들리지 않고 15, 16번 홀(이상 파4)에서 두 번째 샷을 연달아 홀 2m 정도 거리에 붙이면서 버디를 추가, 20언더파 고지도 넘어섰다.

김인경의 이날 21언더파는 이 대회 사상 두 번째 최솨타 우승 기록이다. 이 대회 최솨타 우승 기록은 1998년 박세리의 23언더파다. 김인경은 2012년 유소연(27)의 20언더파 이후 5년 만에 20언더파보다 좋은 성적으로 우승한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리아 소재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의 미여자프로골프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김인경이 갤러리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6월 숄라이트클래식에서도 정상에 오른 김인경은 이번 시즌 유소연에 이어 두 번째 다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등산학교' 참여하세요

26~30일부터 월출산서

일반·지도자과정 운영

"열정이 능력을 이긴다"

광주·전남지역 알피니스트의 산실인 '광주·전남등산학교'가 오는 26일부터 월출산에서 열린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과 (사)광주·전남등산학교 정구반과 양백반을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국립공원 월출산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과 전남도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등산학교는 일반과정과 지도자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과정에는 산악회원은 물론 등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지도자과정은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자와 전문등반에 대한 기초지식 보유자가 입교대상이다.

교육은 알피니즘의 역사 및 국내외 등반사 등을 배우고 장비사용법, 확보물 설치, 인공등반 및 안전장비 등 급저지 등으로 진행되며 2차례 종합등반으로 마무리한다.

광주·전남등산학교는 지난 1979년 8월 지리산 피아골에 개설된 '제1회 산간학교'가 그 효시로 하계 정구반과 양백반, 동계반 등을 매년 운영해 지금까지 3000여명의 산악인을 배출했다.

지난 2016년에는 광주·전남, 대구·부산 학생산악연맹이 공동으로 중국 사천성에 있는 거니에신산(6,204m) 원정을 하는 등 지역 산악인들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류재강 광주·전남등산학교장(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회장)은 "최근 젊은 층들의 산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 잠재된 산악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번 등산학교를 계기로 삶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충분히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류현진, 37일만에 4승 도전

오늘 미네소타전 선발...발 부상 후 26일만에 등판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발은 괜찮을까. 37일 만에 승리 소식을 알릴 수 있을까.

25일 오전 11시 10분(한국시간)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미국프로야구 후반기에 처음 등판하는 류현진에게 달린 물음표는 한줄이 아니다.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4회 안드렐튼 시몬스의 강한 타구에 원발을 맞았고,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전반기를 마감했다.

14경기에서 72.2이닝을 던졌고, 3승 6패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4.21을 올렸다.

왼쪽 어깨와 팔꿈치를 수술하고 3시즌 만에 빅리그에 돌아온 것치고 류현진의 전반기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의견, 전성기 때만큼 구속이 나오지 않아 투구 내용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견

해 등이 쏟아졌다. 게다가 타구에 맞은 발의 통증이 길어지면서 '괴물' 류현진을 걱정하는 시선이 늘었다.

26일 만에 실전 마운드에 오르는 류현진은 이런 고민을 떨쳐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마이너리그로 내려가 재할 투구를 거치지 않고 지난 15일 타자를 타석에 세워둔 채 던지는 시뮬레이션 투구만으로도 출격 준비를 마친 것을 보면 발의 상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제 전반기 막판 보여준 수준급의 스피드, 날카로운 커브,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의 마법을 재현하는 일만 남았다.

복귀전 상대 미네소타 트윈스가 2013년 빅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대결하는 팀이라는 점은 류현진에게 부담을 적게 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